

복지관 소식

한국전력공사 홍천지사 / 만원의 힘(지병임 회원)

추석명절 情 나눔 행사



<한국전력공사 홍천지사>

첫 번째 나눔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9월 5일 (월) 한국전력공사 홍천지사(지사장: 김용문, 노조위원장: 오현석)의 후원으로 이용회원 200여명에게 명절특식(떡, 음료, 과일 등)을 제공하였다.



<만원의 힘>-지병임 회원

두 번째 나눔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9월 6일 (화), 만원의 힘 후원자이자 노인복지관 지병임 이용회원께서 홀몸어르신 45가구에 명절키트(송편, 전세트, 사과즙, 사과곰탕, 육개장, 구운 김세트 등)를 제공하였다.

첫 번째 나눔

오현석 노조위원장은 “추석명절 기간에 지역 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홍천군노인복지관과 함께 추석명절 나눔 행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나눔

지병임 후원자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고, 정서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홍천군노인복지관과 함께 추석명절 나눔 행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지병임 후원자는 만원의 힘 회원분들과 함께 홍천읍과 북방면에 거주하시는 홀몸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명절 키트를 전달하였다.

풍물놀이반 국악동아리 대상 수상



9월 17일(토) 홍천군에서 주최하며 한국국악협회 홍천군지부가 주관하는 홍천군국악동아리 경연대회에서 홍천군노인복지관(관장 현운재)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 ‘풍물놀이’반이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한 어르신은 “코로나19로 많은 공연과 경연대회가 위축된 가운데 오랜만에 풍물놀이반 회원들과 함께해 즐거웠으며, 좋은 결과를 얻어내 더욱 더 즐거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노인인식개선캠페인 공모전

5행시 공모전 - 대상

성명: 안성진

노 노인이라 사랑입니다
 인 인정 많고, 정이 넘치는
 북 북스러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지 지애와 교운으로 다정한 목소리로
 관 관심과 넘치는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 오래 함께해요!

슬로건 공모전 - 최우수상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펼쳐 보세요 (차정연)
 새벽은 시간이 흘러 나무로
 아이는 시간이 흘러 노인으로 (임오진)
 노인,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성숙이 빛어낸 사랑 (박영희)

CONTENTS

- 02 - 베이비붐 세대
- 03 - 지역소식(홍천жат)
- 04 - 지역탐방·구독자칼럼

- 05 - 인물탐방(김옥자)·인생칼럼
- 06 - 미래금융
- 06 - 지역탐방(공작산)

- 07 - 평생학습 6탄·인생칼럼
- 08 - 행복나눔빨래방
- 08 - 돌봄케어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에게 가족은 무엇인가?

명절은 늘 모두에게 그 이유가 어떨든 특별하다. 더욱이 얼마 전 지난 추석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명절이다. 좋은 날씨와 높푸른 하늘, 풍성한 수확이 있어 마음도 웬지 넓어지고 들뜨게 되는 추석이다. 하지만 명절이기에 더 아픈 가슴들이 있다. 누구나 다 누리는 것 같은 만남과 나눔에서 자기만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올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해후하는 기회가 만들어진 특별한 명절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과 차량들이 부모를 뵈러, 형제자매와 친구들을 만나러 고향으로 향했다. 길이 막히면 어쩌랴 시간이 걸리면 어쩌랴 그리운 얼굴들을 오랜만에 만나러 가는 길인데.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과연 얼마까지 갈 것인가? 결혼과 출산도 이제 당연한 일이 아닌 게 됐듯이 명절에 부모를 찾아가는 일, 형제자매가 만나고, 친척 어른들께 인사드리러 가는 일이 특별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손주 얼굴 한 번 만져보고 싶네

A씨(67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늦게 장가간 큰아들에게 네 살배기 손자가 있다. 아들 부부가 모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태어났을 때는 가보지도 못하고 백일 때 가서 손자 한 번 안아보다 며느리한테 핀잔만 듣고 마음이 상해 아내와 함께 뒤돌아서 집으로 내려왔다. '아니 손도 안 씻고 애를 안으시면 어떻게 해요!' 민망하기도 했고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많이 배우고 친정이 좀 살만하다고 시댁을 무시하는 투가 눈꼴시었는데 이런 핀잔까지 들으니 견딜 수가 없었다.

반(半) 처가살이인 큰아들이 스마트폰으로 잠깐씩 보여주는 손자 모습에 아내의 금세 눈물이 그렇그렇해진다. 코로나 핑계로 고향에 안 온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간다. 팔푼이 큰아들은 제 아내에게 부모님 뵈러 가자고 한 번이나 제대로 말해 보거나 했을까?



◇스마트폰 속의 손주들 사진을 그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할머니

손자는 스마트폰 속에만 있다. 그 손자를 아내의 수도 없이 쓰다듬어 본다. 그런 아내가 안쓰러워서 짐짓 버럭 소리를 지른다. '그렇게 쓰다듬고 있으면 애가 튀어 나오기라도 하나구!' 아내는 볼멘소리로 '손주 백일에 당신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손주 얼굴 한 번 만져 보고 싶네.'하고 스마트폰을 쥐고 돌아앉는다. A씨는 자기도 모르게 '이 빌어먹을 세상'이라고 누구에게 말 것도 없이 중얼거리며 방문을 밀치고 나와 버렸다.

'내리 사랑'이라고 했던가? 그 사랑에 무슨 보상을 바랄까 보나마는 제 자식 귀한 것에 100분의 1이라도 부모를 생각한다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서운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이 또한 부질없는 욕심인가 싶어 A씨 내외는 한숨만 내쉰다.

둘째 아들도 취업준비 한다고 몇 년째 전화만 하고 있다. 제 판에는 백수신세가 민망해서 얼굴을 내비치지 않는 것이겠지만 부모 마음에 안타깝기도 하지만 자식을 그리는 부모의 심정을 몰라주는 것 같아 이 또한 서

운한 마음이 든다.

자식이 같이 살 거라고 언감생심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늙어서 이렇게까지 적막강산에 살 줄은 몰랐다. 하지만 누구를 탓하랴. 세태가 그렇고 우리가 자식을 잘 못 키운 죄지. A씨 내외는 오늘도 뒷마루에 걸터앉아 먼 산만 바라본다.

못난 자식이 부모 곁을 지킨다?

B씨(66세)는 귀농귀촌 바람을 타고 5년 전에 농촌에 정착을 했다. 말이 좋아 귀농귀촌이지 귀농도 아니고 귀촌도 아닌 어정쩡한 이주정착이다. B씨는 건설 회사를 다니다 정년퇴직했고 그의 아내는 중학교 교사로 있다가 명예 퇴직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서울에서 1시간 남짓 되는 거리에 있는 밭을 천평을 샀다. 100평은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살 집을 지었다. 구백 평 농사가 벅찼지만 나름대로 애를 썼다.

농사고 살림이고 제법 자리를 잡아가갈 때에 셋째네가 더럭 같이 살겠다고 작년 봄에 들어 왔다. 두 살 배기 손주도 딸려 왔다. 오토바이로 배달하며 먹고살았는데 사고로 인해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된 것이다.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가 있게 된 것이다. 공부 잘 하던 형이나 누나의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더니 이 일 저 일 기웃거리다가 결국 먹고살기도 벅찬 삶이 된 것이다. B씨 부부는 늘 이 아들이 걱정거리요 아픈 손가락이다. 그래도 무슨 재주에서인지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다. 형이나 누나는 자리잡으면 날겠다고 아직도 출산을 미루고 있는데.

부아도 났지만 불쌍한 생각에 죽이 든 밥이 든 함께 살아보자 하며 끌어안고 산 지가 어느새 1년을 훌쩍 넘겼다. 지나고 보니 갈등도 있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자기들 처지를 생각해서인지 대체로 부모에 순종적이다.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을 아들 며느리가 맡아서 해낸다. 게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픈 손주가 있지 않은가. 다달이 타는 두 사람 연금이 제법 쏠쏠하니 큰 부담은 없다.



◇손주의 재롱에 함박 웃는 할아버지

올해는 서툰 솜씨지만 배추와 고추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돈이 되는 맛을 좀 보았다. 게다가 내년에는 둘째를 낳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지 않는가! 공부 좀 한다고 학원이다 과외다 쳐들여서 키운 자식들은 무슨 생각이 그리 많은지 결혼도 늦게 하고 자식 낳기는 안 낳는 것인지 못 낳는 것인지 차일피일 늦추기만 한다.

이제 B씨 부부에게는 막내가 더 이상 아픈 손가락이 아니다. 제 분수 알고, 시작이야 어찌됐든 늙은 부모 챙겨주는 고맙고 귀한 아들이다. 이 부족한(?) 아들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노후였겠는가!

가족의 해체는 베이비붐 세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위에서 본 두 베이비부머의 사례는 극단적인 경우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일반적으로는 두 양극의 사례가 교차하는 부분에 놓여 있다고 여긴다. 그런데 이 교차 부분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고 세대 간의 차이를 크게 보지 않았다. 굳이 구별한다면 일제강점기 세대, 해방 및 6·25 세대, 베이비붐 세대 정도였다.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세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세대구분도 좀 더 세분화되었다. 86세대, X세대, Y, MZ세대, 밀레니엄 세대 등등.

각 세대는 세대 나름의 삶의 양식과 비전이 있다. 예컨대 베이비붐 세대는 수직적인 팽창으로 인해 극심한 경쟁체제에 노출되었다. 물론 산업화로 인해 기회도 많아졌지만 살아남기 위한,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치열한 경쟁이 일상화되었다. 만원버스에 짐짝처럼 실려 등교해야 했고 입시지옥에 시달려야 했다. 야근을 밥 먹듯 하고 휴일도 없이 일해야 했다. 내 자식을 남의 자식보다 낫게 키우기 위해 기를 쓰고 돈을 벌어야 했다.



◇가족의 개념 안에 다양한 공동체가 들어와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전 세대와 후 세대를 이어주는 일반적인 세대적 역할이 있다.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에 와서 이 역할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전 세대가 그랬듯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자식된 당연한 도리이다. 이 도리 또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에 와서 이 룰이 깨졌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는 조만간 노인세대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의 부모들은 아직도 생존해 있고 물심양면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따로 살거나 형제 중의 누가 모시고 있더라도 무슨 때면 찾아봐야 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자발적이든 의무감에서든.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는 부모를 모신다는 인식 자체가 희박하다. 모시지 않는다고 해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삶을 공유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가족을 공동운명체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베이비붐 세대는 괴부로 느끼고 있다. 홀로 혹은 부부만이 살아가는 베이비부머들이 많다. 속 편하다고 말하고 자유롭다고 말하는 이면에는 늙고 병들어 가는 앞날에 대한 불안과 쓸쓸함이 묻어 있다. 인생 2모작 3모작을 말하지만 가족의 해체를 매우 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족의 개념과 범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가족에 대한 피 당김이 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의 개념 안에 이웃과 지역공동체, 다양한 커뮤니티가 들어와야 한다. 100%를 채우는 하나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50%, 60% 되는 덜 채워진 것들에 삶을 연결해야 풍성해진다.

성문영 기자(sung-goodnews@hanmail.net)

지역의 특산품 ‘명품 홍천 잣’



◇지리적표시등록 제26호

홍천에 명품 중 하나인 홍천 잣은 입소문을 통해 추석에 감사 선물로 인기가 매우 높은 편이다.

요즘에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성이 살아 있는 특산물 홍보가 한창인데 많이 알려진 특산물은 이천, 여주, 철원의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맛있는 쌀, 인제의 청정한 산에서 채취되는 산나물, 나주의 과즙이 살아있는 배, 성주의 참외, 가평의 잣 등이 있는데 홍천 또한 잣의 원조이자 고향이다.

홍천 잣은 조선 시대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홍천 편에 松子(잣)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홍천에는 海松子(잣)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잣의 역사성, 지리적 명성, 품질을 예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왜 잣 하면 홍천이 아니고 가평으로 알려져 있을까?

홍천 잣을 조금 더 알아보자. 예로부터 홍천 잣은 그 명성이 널리 중국에까지 전해졌고, 본향이 바로 ‘홍천 화촌면 풍천리’이며, 풍천리에 잣이 식재되기 시작하였을 때는 1935년이다. 당시 일본인 ‘야림유철’이 전국을 누비며, 잣나무가 생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찾던 중 ‘홍천 화촌면 풍천리 덕발재 재상너미골’(화촌면 풍천리 42-45)이 동남향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해발 450m 이상의 지대로 잣나무가 좋아하는 고도와 토양, 바람, 햇빛, 강수량 등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 선택했다.

현재 100년 남짓 된 잣나무가 185ha, 식재 면적만도 1,220ha에 이른다. 이곳에서 생산된 잣은 송이뿐만 아니라 잣 알이 싹하고 잣 고유의 향이 진하다.

우리나라의 잣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며 그중에서도 국내 최대 잣 군락지로 꼽히는 홍천의 잣은 ‘홍천 명품 농·특산물’ 중 하나로 2007년에는 청와대 설 선물로 선정, 2009년에 산림청 지리적 표시 ‘제 품목 제 26호’로 등록했다.

잣은 보통 처서(양력 8월 23일경)가 지나면 수확을 하게 되는데, 수확된 송이 잣은 현지에서 직접 수매하여 가공공장으로 운반되어 잣송이를 햇볕에 며칠간 말린 후 ‘탈잣기’에서 잣송이 껍질을 분리하는데 잣송이 하나에 약 100-120개 정도의 잣이 들어 있는데 이



잣을 ‘피잣’이라 한다.

피잣의 껍질을 벗겨내어 세척하여 건조과정을 거친 후 잣 선별기에 의해 크기별로 선별한다. 선별된 피잣이 ‘껍질을 벗기기’를 거친 후 찬물로 세척한 후 건조시키면 명품 잣으로 태어난다. 잣을 따는 수고로움이 큰 만큼 명품 홍천 잣은 정성을 기울여 최첨단의 가공 시설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이런 명성이 있고 지역특



산물로 자리잡아야 하는데, 잣 하면 왜 가평으로 알려져 있을까?

우리 홍천의 잣이 가평의 잣보다 부족할까? 아니다. 전국 잣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홍천군의 잣이 매년 외지로 유출되는 실정이고, 홍천 잣이 다른 지역의 잣으로 둔갑하는 환경이다.

지역의 특산품인 잣의 농산물원산지 변경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안을 굳은 마련해야 한다. 홍천잣은 전국에서 생산량의 70%를 생산하는데 30%가량만 홍천 지역에서 수송되고 나머지 40%는 외지로 빠져나가 해당 지역의 브랜드를 걸고 시중에 판매된다고 한다. 전국 잣의 브랜드는 ‘made in 홍천’이어야 한다.

그런데 잣의 브랜드가 다른 지역 생산품으로 표기된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생산지는 홍천인데 판매지는 다른 지역으로 바뀐 셈이다. 잣의 생산지를 정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홍천 잣이 다른 지역 잣으로 바뀐 이유를 알았다.

이제 굳은 잣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지리적 표시 제 등록을 완료하고 지적재산권의 법적보호는 물론 홍천 잣의 우수성을 검증하는 객관적인 기반이 확보돼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홍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기존 지역 가공업체의 수매 시설용량을 늘리고, 자금을 지원해 잣을 통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

다른 지역은 잣의 홍보대사도 있다. 우리 군에 잣의 홍보대사는 누구인가?

홍천의 브랜드로 잣을 알려야 한다. 홍천에 옥수수가 유명한 것은 군의 지속적 관심과 홍보 우리 농민의 자존심으로 옥수수의 브랜드를 지켰다. 이제 홍천군과 산림조합은 기존의 잣마을의 명성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림조합 등 사업자에게 국비와 군비 등을 투입, 자금력은 물론 저온 저장시설 등 생산시설을 대폭 증설하며 다양한 메뉴를 개발 홍보해야 한다. 잣마을 축제와 잣나무 숲길로 이어지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김명국 기자(myungkook@hanmail.net)



홍천 원도심투어 ‘감성’ 과 ‘추억’ 을 한번에 잡다



◇로컬가이드 준비중인 주민들



◇신장대리 벽화 골목



◇홍천성당

202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예비사업 로컬가이드 탄생
홍천여행의 시작! 희망리 주민이 만드는 여행플랫폼 운영
역사 유적지 더불어 홍천전통시장 먹거리 소개까지 알찬 여행

희망리 일원 도시재생예비사업은 홍천군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홍천여행의 시작! 희망리 주민이 만드는 여행플랫폼」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홍천 원도심투어는 홍천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아울러 볼 수 있는 공정여행이다. 이 여행이 더 특별한 점은 홍천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로컬가이드가 되어 진행된다는 것이다.

홍천 희망리 주민들은 마을을 찾는 사람들의 증가와 그로 인한 경기활성화, 마을 활력을 되찾기 위해 모였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중 마을 공정여행사 설립이 운영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주민들은 이름만 그럴싸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정여행의 실질적 활동가로 참여하기 위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교육 및 실습을 거쳐 올 8월부터 본격적인 원도심투어 로컬가이드가 되었다.

이제는 센터와 주민들이 함께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원도심투어를 중심으로 관내지역 내 지역관련 상품 및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경제 선순환 구조를 생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임규석 희망리 협동조합 발기인 대표는 “로컬가이드로서 여행객이 홍천군에 대해 가까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원도심 투어를 통해 홍천만의 매력을 홍천주민들 시선으로 여행자들에게 알차게 전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투어는 주민들이 로컬가이드 교육과정에서 직접 기획한 상품으로 홍천 원도심이 가진 자원들과 홍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를 접목시켜 기획했으며, 지속 가능한 여행, 공정여행을 추구한다.

투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홍천군 내에 있는 당간지주, 사사자 삼층석탑 등 역사 유적

지와 홍천시장, 홍천강변 등의 홍천의 자연스러운 현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짜여 있다. 또 투어에는 홍천시장 먹거리 맛보기 체험도 포함되어 홍천 향토음식도 즐길 수 있다. 홍천 신장대리의 역사를 그려낸 신장대리 벽화거리로 지나 홍천 상설시장을 방문한다면 옛 향수와 현재 힙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최소영 홍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희망리가 홍천 원도심 투어로 지역 관문마을이 되어 여행객들이 홍천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이 되리라 기대하고, 홍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리 주민과 함께 하는 원도심투어 참가 문의는 홍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t.033-430-4823)에서 가능하다. 이복여 기자(boy1145@hanmail.net)



내가 너를 꽃이라 부르는 이유는?
 구독자: 이김순

꽃, 꽃, 꽃. 사랑말방꽃, 은동꽃 세상이다
 작약, 보라꽃, 어수리꽃.

자세히 보아하니 꽃마다 나름의 모양이 있다
 둥근꽃, 길쭉꽃, 납작꽃.

아무리 모양은 달라도 나는 너를 꽃이라 인다
 말미꽃, 들깨꽃, 맥내꽃

자세히 보아하니 꽃마다 나름 색깔이 있다
 빨강꽃, 노랑꽃, 파랑꽃

내가 너의를 꽃이라 부르는 이유는
 우리는 한 지붕아래 살아가는 가족이니까



사랑이란 그러한 것
 구독자: 이경의

어느덧 내 얼굴에도 검버섯이 틀어진다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이제는 내 얼굴에도 주름살이 생겨난다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그렇다. 내 머리카락도 하얗다.
 우리 모두는 아속한 시간 앞에서
 나도, 너도, 그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다

내 두 눈가에 붉어지는 눈시울
 작은 눈물 방울 여러개가 맺어서
 크게 방울져서 마침내 아래로 툭 떨어진다

사랑이란 그러한 것.

인물탐방

김옥자 어르신

홀로 종묘상 운영하며 4남매 5시누이 길러

홍천읍 중앙시장에서 우리종묘사(리후레쉬 강원총판)를 운영하는 김옥자 어르신(사진)은 올해 81세를 맞이하였다.



◇김옥자 어르신

“어느 새 여든이 되었나?” 문득 생각에 젖다가도 고객과 상담을 하노라면 젊은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간다. 하루하루가 새롭다.”

김옥자 어르신은 미소를 머금고 열정적으로 일에 전념한다. 가게에는 농약류 씨앗류 모종류가 진열된 가운데 의자 2-3개 놓고 고객과 둘러앉아 상품설명하고 사용법 알려주며 평생을 지냈다.

“3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는 큰 충격이었지, 내가 낳은 아이들 넷, 시부모가 낳으신 자식 같은 시누이 다섯, 그 어린 것들 아홉을 기르고 교육시키고 해야 하는데 눈 앞이 아득했다.”고 한다.

원주여상을 졸업하고 중매로 신랑감을 소개 받았는데, 당시 신랑감은 홍천농고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농촌지도소(현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멋쟁이였다.

공무원 생활을 하던 남편은 종묘사를 개업하고 새로

운 사업을 펼쳤다.

대부분 농업으로 이루어진 홍천지역의 산업구조에서 남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형편이 좀 나아지자 남편은 못 다한 공부를 한다면 동국대학에 진학하여 학사과정을 이수했다.

남편은 폭넓은 인맥과 타고난 성실성을 인정받으며 유지로서 자리를 잡아갔다.

4남매를 낳아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났다.

사업도 잘되고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상을 받아오고 주변사람들의 신망도 얻고 모든 생활이 안정되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다.

21살에 결혼하여 50을 갓 넘긴 김옥자 씨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옥자 씨는 주저앉을 수조차 없었다. 어린 4남매는 물론 자식 같은 연령의 시누이 5명을 길러야 했기 때문이다.

종묘사 운영을 위해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했다. 이후 30년 동안 오직 한 우물을 파며 어느 새 81세의 어르신이 된 것이다.

자녀들도 성실한 어머니를 본받아 잘 성장했다고 한다. 작은 딸은 숙명여대 약학과를 수석으로 합격하여 약사가 되었고 큰 아들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재원으로 회사의 중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작은 아들은 강화도의 농토 5만평을 구입해 부농을 이루었고



◇우리종묘사 전경

큰 딸은 개인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등 4남매가 성공하여 어머니의 명예를 더욱 드높여 드리고 있다.

허남영 기자(hny1985@naver.com)

인생칼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노인의 날에는 노인에 대한 공경과 감사,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 전통 대대로 내려오는 아름답고 좋은 풍속에 해당되는 미풍양속중의 하나인 노인공경 사상은 단순한 풍속이상의 의미를 넘어서 자손 대대로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전해 내려와야 하는 좋은 생활습관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노인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겪게 된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 내가 내 자신의 옛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 시대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몇 글자를 남겨본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지난 일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내 나이 유년시절에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어리고 연약한 저에게 사랑과 회초리를 건네주시면서 제가 성



인이 되어서 철이 드는 그 어느 날까지 아무런 기약 없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내 나이 청년시절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실패와 좌절로 가득한 저에게 용기와 잔소리를 건네주시면서 제가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아무런 기약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내 나이 중년시절에는 “어머님”이라는 이름으로. 결혼과 육아로 지쳐있는 저에게 위로와 용기를 건네주시면서 제가 결혼과 육아를 행복으로 여길 때까지 아무런 기약 없이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내 나이 노년시절에는 또 다시 “엄마”라는 이름으로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한숨 돌리고 있는 저에게 웃는 얼굴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내 스스로 인생 살아가는 것이 별 것 아니라고 여기는 그 어느 순간까지 그 때에도 분명히 어디에선가 아무런 기약 없이 기다려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에 힘입어 어제를 잘 살아왔고, 오늘을 잘 살고 있으며, 내일을 잘 살아갈 것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세상에 당신의 딸로 태어난 것을 잊지 않는 한, 어머님 이름 세 글자는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빛이 날 것입니다.

김춘자 기자(limks1214@hanmail.net)

1929년 대공황

190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은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규모를 넘어섰다. 1914년에 시작하여 1918년에 끝난 1차 세계대전으로 온 유럽이 상처를 입은 반면 대서양 건너 미국은 비교적 피해가 적었다.

1920년을 전후해서 전쟁의 후유증으로 약간의 침체를 경험했지만 엄청난 자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 불과 수년 만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1922년부터 신흥 공업과 새로운 생산 기술의 급격한 발달, 산업 전반에 걸친 기계화, 기업 조직의 거대화, 신 경영방식의 도입, 신용제도의 정비로 미국 자본주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비야흐로 1927년에 이르러 미국 경제는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았다.

하지만 성장이 정체되면서 호황으로 여유로워진 자금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증권으로 몰려들었다. 주가는 기업의 실질가치를 넘어서면서 이른바 거품현상이 나타났다. 주가 상승은 더욱더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고, 1929년 10월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가는 그 거품을 걷어내고 폭락했다. 주식 가격의 폭락은 기업들의 자산 손실을 낳았고,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했다. 결국 기업들의 연쇄 도산으로 경제 전체가 붕괴되는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1929년 대공황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지만 경제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던 미국에 훨씬 더 큰 충격이 있었다. 대공황은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장기 침체를 겪

고 나서도 쉽게 극복되지 않았다. 1932년 미국의 공업생산고는 1929년 공황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44%가 하락하였고 1908년 수준까지 후퇴한 상황이었다. 대공황이 절정에 달했던 1933년에는 미국의 은행 10,000여개가 파산했고, 실업자 수는 무려 1,500만 명에 다다랐다. 대공황은 또한 공업부분만 타격을 준 것이 아니라 농업부분, 금융부분까지 그 타격은 경제 모든 부분을 망라하였다. 1931년 오스트리아의 은행 도산을 계기로 유럽 모든 나라에 금융공황이 발생하여 세계는 비로소 한 나라의 경제 파탄이 전 세계로 과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긴다는 자유경제 경제이론은 그 합리성이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케인즈를 비롯한 수정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대공황은 결국 '뉴딜정책'으로 상징되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 정책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었으며, 이후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자본주의 경제원리로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대공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하나가 아니었다. 매우 복잡다기하여 현재로서도 구명하기 어려운 문제로 여기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있다. 우선 당시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어 국민의 5% 정도의 상류 부유층이 소득의 3/1을 차지했다. 이는 요즘 심각한 불평등의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방임주의와 시장 만능주의의 한계로 발생했다는 이론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이론으로 대체되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각 정부의 보호무역이 대두되면서 수출 시장이 축소되었는데 이는 자유 시장경제의 각 나라들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이었다. 또한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공산품 가격의 가격 상승은 당시 공산품을 소비해줄 농업인들이 구매를 줄여 결국 공급의 과잉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도 한 이유다. 그리고 전후 독일은 전쟁 배상비가 천문학적이어서 화폐를 과도하게 찍어냈고, 이는 초인플레이션을 낳아 경제가 파탄나 연쇄적으로 유럽 경제까지 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1, 2차 산업에 해당하는 '구산업'에서 3차 소비산업인 '신산업'으로 급격히 변화한 까닭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이어졌고, 경기에 민감한 신산업은 커다란 버블을 낳았던 것도 그 원인이라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를 통제할 국제통화기금이 부재한 것도 그 한 원인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맞물려 터진 대공황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모든 원인을 차치하고라도 결국 사람들의 광기어린 탐욕이 거품을 만든 것은 아닐까.

김민호 기자(minho215@hanmail.net)

공작산 생태 숲과 등산로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공작로길180 일원 정상에는 공작산 887m의 등산로가 자리잡고 있으며 주변에는 산세가 빼어나게 아름답다. 물론, 공작산 산기슭에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으며 공작산 정상까지 오고 가는 등산인의 발걸음을 잠시나마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내다보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한국의 100대 명산중 하나인 공작산 취재 계기는 실버신문 창간100호에 가리산을 취재하였고 연이어 101호 두 번째로 공작산을 전국 만방에 알리고자 한다. 주변에 있는 수타사와 더불어 은행나무의 고장, 생태 숲과 테마공원을 비롯하여 홍천군 공작산을 언급하고자 한

다. 홍천군 공작산은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동쪽에 있는 산으로 공작산을 중심으로 북동 동쪽은 화촌면 군업리, 남서쪽은 영귀미면에 속해 있는 곳이다.

공작산에 대한 재미난 일화들

공작산의 모습은 산세가 공작과 같다고 하여 공작산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라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다. 홍천군 화촌면 쪽에서는 굴운 저수지와 낚시터가 있으며 발원지로서 위쪽은 큰골 아래쪽은 작은골로 되어 있다. 작은골 입구에는 낚시터가 있어서 태공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그 위로는 생수가 흐르고 있으며 이 생수는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여 중국과 일본으로 전량 수

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작산 작은골에서 임도를 따라 동남쪽으로 약2km 걸어가면 영귀미면에 속해 있는 신봉리가 나오는데 그 밑에는 동봉사라는 절이 돌담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보는 이 누구에게나 감동을 주고 있다.

주지스님 또한 이웃과의 교류에 앞장서 몸소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시고 있다. 공작산 정상 등산로에는 영귀미면 노천리 노천저수지가 있고 북동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등산객도 많이 찾고 있다. 그리고 공작산 정상 서쪽으로 넓은 산자락에는 천년 고찰 수타사가 존재하며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이 전국에서 찾고 있는 곳이다.

안태수 기자(taesu9110@naver.com)

노년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콩닥콩닥 스토리텔링”

홍천군에서 실시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중 제 6탄으로 요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이름조차 재미있는 “콩닥콩닥 스토리텔링” 강의실을 찾았다.

마침 지역을 살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100선 중 20선 안에 들어, 홍천군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 및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낭보를 접했다.

스토리텔링의 어원은 남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재미있고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행위라고 한다.

쉽게 다가가자면 어린 시절 잠자리 들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옛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녹아 있는 생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 내용은 홍천의 문화를 재발견하여 동화 구연 및 홍천의 옛이야기를 전달하는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어르신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활동 유도과 제 2의 인생을 맞이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을 할 수 있으며, 홍천군의 특성에 맞는 스토리텔링 전문가로 지역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어르신분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노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자존감을 살릴 수 있고, 인생 제 2막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11월 중순까지 상반기 16회, 하반기 17회 강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정 중 특이한 것에는 동화구연부터 발성 연습, 풀성대 만드는 법, 동물소리 흉내 내기, 복화술 시연과 연기지도도 받을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요한 치유 그림책, 손유희 연습 및 교구 제작하는 법 등 책을 통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 수준



의 다양한 교육을 받은 후 개인발표 및 조별발표, 작은 발표회를 거쳐 홍천에 소재하는 “삼덕원”을 찾아 지금까지 배우고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한 봉사활동까지 연계되는 배움의 터이다.

특히, 요즘 시대의 일부가 되어버린 엄마, 아빠의 맞벌이로 인해 손자나 손녀를 돌봐야 하는 어르신 분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통해 점점 진화되어 가는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나 감성에 쉽게 다가가서 아련한 어린 시절의 추억 한페이지가 될듯한 프로그램이다.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연봉도서관 3층 문화강좌1실에서 실시하는 강좌에 조금 이른 시간에 도착하니 미리 와 있던 야시대리에 사시는 “오명숙”님을 만나 스토리텔링 강의를 듣게 된 이유를 묻자, 처음에는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수강을 듣다보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책으로 힐링이 되는 케이스이며, 16강을 듣고 나면 “그림책 지도사” 자격증을 딸 수 있



고, 나이가 들어 노안으로 책읽기가 불편한 어르신 분들을 위해 이야기로 이해시키며 풀어나갈 수 있으며 그림 속에서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회원들과 책을 공유하며 읽다보니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마을 어르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통해 같은 공간에서 어울리며 그림을 통해 나를 접목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소외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토리텔링은 우리의 어린 시절 깜빡이는 호롱불 아래에서 도란도란 구수한 옛이야기로 잠속으로 이끄시던 할머니의 모습을 소환하여 나의 손자 손녀에게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추억어린 풍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인생 2막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평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서행연 기자(bonbon2202@naver.com)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역 간, 국가 간에도 선물의 교환을 통해서 서로의 친교를 확인하고 다진다.

하지만 선물 문화가 왜곡되면 자신의 부와 위신을 내세우는 허례허식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한다.

마음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남의 마음을 사고자 한다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어 부패를 조장한다.

선물은 마음을 담은 물질의 교환이지만 선을 넘으면 경계의 뿌리를 흔드는 사치가 되고, 물건이 아닌 돈을 상

에 노래 시합을 하자”는 거였다. 백로(白鷺)를 심판(審判)으로 하고서, 피꼬리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다. 노래를 잘 하기는 커녕 목소리 자체가 듣기 거북한 까마귀가 자신에게 노래 시합을 제의하다니, 하지만 피꼬리는 월등한 실력을 자신했기에 시합을 응했다. 그리고 3일 동안 목소리를 더 아름답게 다듬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래시합을 제의한 까마귀는 노래 연습은 안하고 자루

였다고 하여 와이로(蛙利鷺)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물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는 데서 뇌물은 출발한다. 선물이 뇌물이 되어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법정에 서기도 하는데, 선물과 뇌물을 가려내기 어려울 때가 많다. 똑같은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는데도 선물이 되고, 뇌물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설날이나 추석, 기념일, 생일 등 축하해야 할 때 상대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표하기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물건이 선물이라면, 뇌물은 의도된 대가를 노리고 주는 물건으로 선물과 뇌물의 근본적 차이는 있다.

우리사회에 청탁 같은 부정을 막기 위해 김영란 법까지 제정되어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순수하고 따듯한 정까지 메마르게 만들기도 한다.

어찌되었건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물건을 받고 잠을 잘 못 이루면 뇌물이고, 잘 자면 선물이며,’ ‘인론에 발표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뇌물이고,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선물일 것이며,’ ‘자리를 바꾸면 못 받는 것은 뇌물이고, 직책이나 자리를 바꾸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선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선물(贈物)과 뇌물(賂物)

자에 담고 포장하면 선물이 되기도 하며, 마음을 돈으로 사는 추악한 뇌물이 되고, 아름다운 미풍양속에 파괴될 수도 있다.

우리말에 “와이로”라는 말이 있다. 옛날, 노래를 아주 잘하는 피꼬리와 목소리가 듣기 거북한 까마귀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피꼬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을 때 까마귀가 피꼬리한테 내기를 하자고 했다. 바로 “3일 후

하나를 가지고 논두렁에 개구리를 잡으러 돌아 다녔다. 그렇게 잡은 개구리를 백로한테 선물로 주고 시합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였다.

약속한 3일이 되어서 피꼬리와 까마귀가 노래를 한 곡씩 부르고 심판인 백로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꼬리는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나 고운 목소리로 잘 불렀기에 승리를 자신했지만 어이없게도 심판인 백로는 개구리를 선물로 준 까마귀의 손을 들어 주

행복나눔 빨래방

밥 잘 사주는 멋진 큰 형님

“월남에서 돌아온 밥 잘 사는 김하사 내 맘에 들었어요~”

행복나눔 빨래방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같이 팀을 이뤄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김태수 큰형님은 반평생을 군에서 복무하시고 20여년 전 원



사로 제대하신 후 젊은 시절 근무하던 홍천에 자리를 잡으셨다고 한다.

병장 때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어 14개월간 월남 귀농에 파병되어 복무하였으며, 5,000여 명의 전사자와 11,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치열한 전장의 월남 파병을 마치고 돌아 온 후, 살아 돌아온 것을 천운이라고 생각하시며 겸손하게 사는 것을 가훈으로 여기며 사신다고 한다. 현재도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홍천지회 회원으로 활동하시며 각종 봉사활동 및 회원화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며,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17년 홍천군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50여년 전 월남전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하사 계급장을 달고 귀국하신 후 현 사모님을 만나 결혼하셨고, 슬하에 3형제를 두고 손주들과 같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고 한다. 옛날 젊은 시절 결혼 및 신혼 때 에피소드를 듣다 보니 갑자기 김주자님의 “월



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이제서 돌아왔네~, 품을 내는 김상사 돌아온 김상사 내 맘에 들었어요~”라는 노래가사가 생각난다. 김상사를 김하사로 바꿔 부르면 바로 큰형님의 귀국 후 축제 분위기를 가족들의 분위기를 그대로 부르고 있는 듯 한 가사라고 상상해 본다. 4박자의 빠른 템포와 흥겨운 춤사위로 전쟁 후 금의환향한 김상사를 반기는 긍정적인 대중가요로 한때를 풍미했던 여가수의 기억이 새롭다.

안정효님의 “하얀 전쟁”이라는 소설과 영화로 월남전 파병에 대한 이면과 민낯에 대한 재평가가 화두로 등장한 적이 있었지만, 국가적 정치적인 이유로 전쟁에서 희생된 개인에 대한 인격을 평가절하 하는 행위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다.

김태수 큰형님은 행복나눔 빨래방 일이 시작된 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일찍 출근하여 지역으로 여기저기 출장을 다니고, 틈나는 대로 빨래방 잔일들을 거들며 작업장 청소도 거들어 주고 업무용 차량 세차도

하며 한시도 가만히 앉아 계시질 않는다.

그 연세에 이불빨래 보따리를 등에 지거나 우유배 송가방을 들고 계단이나 좁은 언덕 골목길, 비포장 농로길 등을 걸어 다니기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겠지만 “이불 왔습니다!” “우유 왔어요!” 하고 소리 치시는 것을 뒤에서 바라보면 아직 이 정도 육체적 강도의 일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인다.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체질에도 맞고,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으신다고 하며, 아침마다 강변을 자전거로 한 바퀴 돌아오고 아침식사는 꼭 드신 후 출근한다고 하신다. 때 끼니를 거르지 않고 차려 주시는 사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고생스럽던 젊은 시절에 대한 미안함을 멋쩍게 표현하시는 센스도 빼놓지 않으신다.

빨래방 운영 시작 시 설정하였던 “노노케어(노인이 노인을 돕는다)” 운영목적 및 운영지침에 어울리는 모범적인 일면이라고 느껴진다. 당사자이신 김태수 큰형님도 현재의 업무형태 및 업무강도에 매우 만족해 하시며 빨래방 업무를 한 이후로 생활도 한결 활기차졌으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전보다 한결 편안해졌다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업무에 임하신다.

분위기 메이커로 가끔 선심 쓰시는 간식과 짜장면은 같이 일하는 우리가 덩으로 얻는 짹짹한 재미다.

밥 잘 사주는 멋진 큰 형님!

인생은 80부터라는 장수시대라지만 아무쪼록 건강을 염려하실 나이에 들어선 만큼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박호관 기자(hokwan_park@daum.net)

돌봄케어

붓글씨에 담겨있는 어르신들의 삶



제가 어제 만났던 어르신은 머리가 희끗희끗 백발 노인이십니다.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적막감이 감돕니다. 평상시 일상에 무표정으로 지내실 때가 많으시지만 한두 마디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십니다.

어르신께서 붓글씨 펜을 손에 꼭 쥐고서 한 글자 한 글자를 힘주어 그립니다. “일그러지다” 라는 말은 분

명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뜻도 좋지 않습니다. 일그러지다라는 말은 물건이 비뚤어지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일그러진”이라는 단어 뒤에 “추억”이라는 말이 뒤따라 붙습니다. 어르신이 일평생 살아오셨던 힘든 고난과 역경을 “일그러지다” 라고 표현하셨다면 지금 현재에는 과거를 되돌아



보니 그래도 소중한 이야기거리 “추억”으로 남겨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뽀뽀글씨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양한 생각을 붓글씨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십니다. 서로 연관이 없는 한자어 3~4개가 화선지 위에서 춤을 춥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어르신께서 입을 열어 한두 마디 대화를 꺼내십니다.

“바르게” “바르게” 라는 단어를 여러차례 붓글씨로 쓰시면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훈계삼아 말씀하십니다.

어르신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글자 하나하나에 어르신의 일평생 삶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시는 어르신의 모습이 수줍어 하는 일곱 살배기 소년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박경임 기자(qkruddla8706@naver.com)